「全一道人」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에 대하여

허 인 영 (고려대)

1. 머리말

근대 한국어 시기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한 학습서가 적지 않게 편찬되었다. 한국에서 간행된 일본어 학습서로는 「첩해신어(捷解新語)」, 「왜어유해(倭語類解)」 등이 대표적이고, 일본에서 편찬된 한국어 학습서로는 「인어대방(隣語大方)」(한국에서 편찬된 조선간본 또한 존재), 「교린수지(交隣須知)」와 같은 것이 있다.[1)]

대체로 이들 학습서에서 한국어 문장은 한글로, 일본어 문장은 일본 문자인 가나(假名)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자의 습득이 기초적으로 전제되는 만큼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학습 초반에 정확한 발음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글 같은 경우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이므로 표기와 발음의 대응이 상당히 규칙적인 편이지만, 한국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음운론적 현상으로 인해 표기와 발음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일본에서 편찬된 한국어 학습서인 「전일도인」에는 한국어가 가나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익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한국어 음운사 연구에 활용할 만하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가나로 표기된 한국어를 지우고 고쳐 쓴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는 편찬자가 당시의 한국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일도인」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 내용을 정리하여 유형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全一道人」의 편찬 동기 및 의도

에도(江戶) 시대 일본의 유학자인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18세기 초

1)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린고타이호(隣語大方)', '고린스치(交隣須知)'와 같이 표기해야 할 것이나, 한국어학계의 관례에 따라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全一道人' 또한 마찬가지이다.

쓰시마(對馬)에서 조선과의 외교에 종사했는데, 그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부산에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다.[2] 그는 여러 권의 한국어 학습서를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현재까지 저자의 필사본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전일도인(全一道人)」(1729)이다. 먼저 「전일도인」의 서지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

호슈회(芳洲會) 소유
다카쓰키 간논노사토 역사민속자료관(高月觀音の里歷史民俗資料館) 보관[4]
책수 및 장수: 1책, 앞뒤 새표지 제외 63장[5]
표지제: '全一道人'
서　문: '...芳洲書'
서사년: '享保十四年六月　日　芳洲書' (1729)
서사자: 雨森芳洲
장서인: '雨', '雨森所藏'
크　기: 24.6cm×18.0cm[6]
사본, 반엽 11~12행, 변란 없음, 무계, 판심 및 어미 없음
닥나무 종이, 4침 선장본

이 책의 외제는 '全一道人'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저본은 明代의 극작가 왕정눌(王廷訥, 1573~1619)이 저술한 교훈서 「권징고사(勸懲故事)」라는 것을 安田章(1964)에서 밝힌 바 있다.[7] 「권징고사」는 '효(孝)·제(弟)·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耻)'의 8부(部)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일도인」은 이 가운데 '효부'(총26조)와 '제부'(총8조)에 해당하는 이야기 34조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하여 실은 것이다. 雨森芳洲가 한국어 학습서로 「전일도인」을 편찬하게 된 동기는 맨 앞에 실려 있는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8]

我州(쓰시마) 사람 중에 무릇 公事에 힘쓰는 자 그 누가 韓語에 뜻이 없겠는가. 그러나

---

2) 雨森芳洲가 한국어 학습을 위해 처음 한국에 체류한 것은 1703년 9월~1704년 11월, 두 번째는 1705년 4월~1705년 11월이다. 그 이후에도 1729년 3월~1730년 10월까지 裁判으로서 초량의 왜관에 부임해 있었는데, 「전일도인」은 이 때 지어진 것이다. 雨森芳洲의 자세한 생애에 대해서는 上垣外憲一(1989), 泉澄一(1997)을 참조.
3) 이하의 내용은 安田章(1964)의 설명과 「전일도인」을 실사(實査)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4) 安田章(1964: 1)에는 소장처가 호슈서원(芳洲書院)으로 되어 있다. 호슈서원은 1984년 11월 3일 '동아시아 교류하우스 아메노모리 호슈암'(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이라는 이름의 雨森芳洲 기념관으로 개축되었으며(吳滿 1999), 소장되어 있던 雨森芳洲 관련 자료는 모두 高月觀音の里歷史民俗資料館으로 이관된 상태이다. 雨森芳洲 관련 자료의 遺傳에 대해서는 木場明志(1994), 佐々木悅也(2009) 참조.
5) 安田章(1964: 4)에 의하면 표지를 합쳐 64장이며 제2장과 제63장은 빈 종이라고 하였는데, 실사한 결과 보수하면서 새로 생긴 앞뒤 표지를 제외하면 원래의 뒷표지가 없이 63장으로 되어 있다.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에 실려 있는 영인본에는 앞표지 右上에 '第九號'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데, 현재 그 종이는 없다. 대신 새 앞표지의 第四針眼이 있는 곳에 '九'라고 적힌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끈으로 달려 있다.
6) 이 수치는 보수로 인해 조금 커진 것이고, 원래 책에 사용된 종이의 크기는 安田章(1964: 4)에서 보고한 대로 24.2cm×17.4cm이다. 다만 서문와 범례의 경우 23.5cm×17.4cm인데, 사용된 종이가 원래부터 본문의 것보다 약간 작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7) '全一道人'은 왕정눌의 별호 가운데 하나이다.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에는 「권징고사」의 영인본도 실려 있는데, 권수제가 '全一道人勸懲故事'로 되어 있다.
8) 일본어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이하 동일.

書도 없고 敎도 없어 그저 望洋之嘆을 품을 따름이다. 여기에 四部의 책을 뽑았으니 처음에는 「韻略諺文」을 읽어 字訓을 알고, 다음에 「酬酢雅言」을 읽어 短語를 알고, 다음으로 「全一道人」을 읽어 그 마음을 기르고, 다음에 「鞾屨衣椀」을 읽어 그 用을 達하게 한다. 바라건대 그 敎에 차례가 있어야 그 材를 이룸에 가까울 것이다. 芳洲 씀. (5)

이처럼 雨森芳洲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통해 문자·발음-단어·구-문장-응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학습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일도인」은 "마음을 기르는" 역할까지도 생각하여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4조로 구성된 범례에서는 한국어를 한글이 아닌 가나로 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표기와 발음 간의 괴리를 보이는 예들을 근거로 들어 보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이 책은 일본 가나로 조선말을 적은 것이다. 肯綮[9]인 부분 옆에 諺文을 적은 것은, 諺文에 익숙하고 말에 어두운 자는 그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렵고, 말에 전념하고 諺文을 모르는 자는 그 말이 잘못되어 곤란하다. 그런 까닭으로 가나로 적은 것을 보고 말을 알고 諺文으로 옆에 적은 것을 보고 말의 本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사람을 이끄는 捷徑이지 인재를 이루는 正法이 아니다. 진정한 正法을 말하자면 총명한 사람을 뽑아 七八歲부터 저 나라에 보내 처음부터 諺文으로 말을 배우게 할 수밖에 없다. (7)

이 범례는 「전일도인」에서 한국어를 가나로 표기한 의도에 대해 잘 알려준다. 먼저 한국어 학습자는 언문(諺文), 즉 한글로 표기된 글만 잘해서도 안 되고 말만 잘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나로 적은 것을 보고 발음을 알고, 옆에 한글로 적은 방훈(傍訓)을 보고 말의 근본, 즉 음성 실현과는 다른 관습적 표기가 암시하는 기저형을 알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10] 이를 통해 雨森芳洲가 발음과 표기의 괴리에 주의하여 가나 표기를 의도하였고, 당시 한국어의 음성 실현에 가능한 가깝게 가나로 표기하고자 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全一道人」 한국어 가나 전사의 개요

「전일도인」의 한국어 가나 전사에 대한 연구는 먼저 安田章(1964)에서 한글 방훈이 달려 있는 어형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하였고, 송민(1986)에서 'ㆍ'의 비음운화와 'ㄷ' 구개음화에 관련된 어형들이 다루어졌다. 「전일도인」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카하시(1998)이 처음인데, 한국어의 음소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대응하는 가나 표기를 상세히

9) 긍계(肯綮): 근육과 뼈가 결합된 곳으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핵심적인 부분. 급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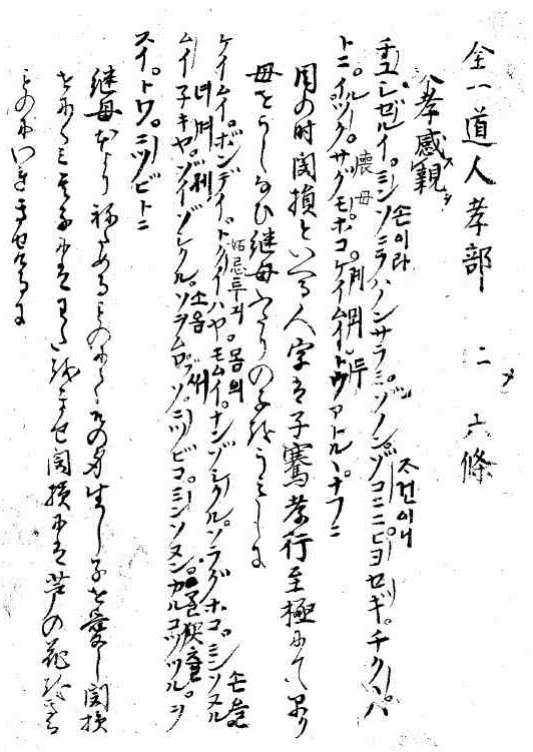
10) 이 '관습적 표기'는 달리 말하면 형태주의 표기라고도 할 수 있다. 15세기의 음소주의 표기와 달리 근대 한국어 시기의 표기법은 여러 모로 혼란스러우면서도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으려는 경향을 드러낸다. 雨森芳洲는 이러한 표기에서 드러나는 입말과 글말의 차이에 주목했을 것이다.

검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雨森芳洲는 「전일도인」의 한국어 가나 표기에서 문자의 전자(轉字)보다는 음성의 전사(轉寫)를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11] 이 때문에 한국어 음절과 가나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며, 일본어의 음절 수가 한국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일대다로 대응하는 경향은 더 심해진다. 따라서 가나별로 출현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어 음소와의 대응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가나 전사의 양상을 일일이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나 표기와 한국어의 음소가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이는지를 표로 제시하면서, 다음 절에서 다룰 내용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이 자료에서 가나 이외에 사용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호에 대해 설명을 해 두고자 한다(<그림 1> 참조).[12]

1) 권점(圈點): 송민(1986: 21)에서는 문 구조에 나타나는 외적 휴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어의 음운론적 단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가나 전사문에는 전권에 걸쳐, 일본어 대역문에는 극히 일부분에 베풀어져 있다.



제1조 '大孝感親'의 첫 부분 (17)

チユシゼルイ。ミンソニラ{손이라}ハノンサラミ。ソ*ノン。ソ*ユニ{ᄌᆞ건이니}。ヒヨ.セギ。チクヽ。ハトニ。イ[삽입부:ル]ツク。サグ.モ{喪母}。ホユ。ケイ.ムイ{계뫼}。トウ{두}アトルヽ。ナフニ

쥬 시져릐 민소니라 ᄒᆞᄂᆞᆫ 사ᄅᆞ미 ᄌᆞᄂᆞᆫ ᄌᆞ거니니 효셩이 지극ᄒᆞ더니 일즉 상모ᄒᆞ고 계뮈(뫼) 두: 아ᄃᆞ를 나흐니

周の時閔損といへる人字は子騫孝行至極にて早く母をうしなひ繼母ふたりの子をうみしに

ケイムイ。ホ*ンデイ。トクイ{妬忌투긔}ハヤ。モムイ{몸의}。ナンソ*シクル。ソラグホユ。ミンソヌル{손을}。ムイネキヤ{녀겨}。ソ*イ{제}ソ*シクル。ソヲム{소옴}ロ。ブ#ソ{써}。ニツヒ*ユ。ミンソヌン。カルユツ.ツル{■ᄀᆞᆯ옷츨}。ヲスイ。トワ。ニツヒ*トニ

계뮈(뫼) 본ᄃᆡ 투긔ᄒᆞ야 모믜 난 ᄌᆞ시글 ᄉᆞ랑ᄒᆞ고 민소늘 믜이 녀겨 제 ᄌᆞ시글 소오므로써 니피고 민소는 ᄀᆞᆯ[고/꼬]츨 오싀 [두어/두워/둬] 니피더니

繼母本よりねためるものにてその身生し子を愛し閔損をにくみ其子にはわたをきせ閔損には蘆の花をきるものにいれきせけるに

<그림 1>「전일도인」 본문과 활자화의 예[13]

11) 여기에서 '전자'와 '전사'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다. 지금과 같이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표기 체계가 없었던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전자', '전사'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전자', '전사'는 엄밀히 말하면 '관습적 표기', '청취적 표기'에 해당한다.

12) 각 부호의 용어는 송민(1986)의 것을 따랐다.

13) 첫째 단의 가나 전사문과 셋째 단의 일본어 대역문은 원본에 있는 것을 활자화한 것이고, 둘째

2) 호선(弧線): 그어지는 범위에 유동이 있으나 대체로 그어진 범위가 하나의 음절임을 알리거나 한글 방훈와 달리 연이어서 발음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 지극 チクヽ (tsikuku) / ᄌᆞ거니니 ソ*コニニ{ᄌᆞ건이니} (tsokonini)
계뮈 ケイ.ムイ{계뫼} (keimui) / 두: トウ{두} (tou)

3) 삼점(三點): 특정 가나의 우상단에 점을 세 개 찍은 것인데, ハ行(h-), サ行(s-), タ行(t-)에서 쓰였다.[14] ハ*行(p-)의 경우에는 양순 파열음 [p]를, サ*行(ts-)과 タ*行(ts-)의 경우에는 파찰음 [ʦ]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5]

4) 작은 가나: ツ, ス, フ(ブ, フ*) 등의 가나를 눈에 띄게 작은 크기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적은 경우가 있다. ツ#(Q)의 경우에는 촉음을 나타내기 위해,[16] ス#(s)나 フ#, ブ#, フ*#(p)의 경우에는 어두자음군 또는 경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7]

이러한 부호들은 일본어와 음운 체계 및 음절 구조가 상당히 다른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전일도인」의 가나 표기를 로마자로 나타내는 방식을 표로 제시한다. 이것은 가나를 보다 익숙한 로마자로 바꾼 전자(轉字)일 뿐이므로, 당시 일본어의 추정 음가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에 있는 한글 표기는 필자가 가나 전사문으로부터 복원을 시도한 것이다.

14) 일본어의 가나를 흔히 행(行)과 단(段)으로 분류하는데, 전자는 자음을 공유하는 가나, 후자는 모음을 공유하는 가나이다. 예를 들어 カ行은 カ[ka]·キ[ki]·ク[ku]·ケ[ke]·コ[ko]와 같이 자음 [k-]를 갖는 가나를 가리키고, ア段은 ア[a]·カ[ka]·サ[sa]·タ[ta]·ナ[na]·ハ[ha]·マ[ma]·ヤ[ya]·ラ[ra]·ワ[wa]와 같이 모음 [-a]를 공유하는 가나를 가리킨다.

15) 이 글에서는 전산 입력상의 문제로 인해 *로 삼점을 대신하기로 한다.

16) 일본어에는 기원적으로 CV의 개음절 구조만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CGV, CVC, CGVC 등의 다양한 음절 구조가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촉음도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 현대 일본어에서 음성적으로는 후행하는 가나의 초성이 길어지게 하는 역할(파열음과 파찰음의 경우 폐쇄 구간이 길어지고 마찰음의 경우 마찰 구간이 길어짐)을 하며, 음운론적으로는 한 단위의 모라로 기능한다. 촉음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표기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3세기 이후라고 한다(沖森卓也 2010: 189)

来て [ki.te] / 切手 [kit.te] アサリ [a.sa.ri] / あっさり [as.sa.ri]
カキ [ka.ki] / 活気 [kak.ki] 胃腸 [i.ʧo：] / 一丁 [it.ʧo：]

17) ス#와 フ#, ブ#, フ*#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전산 입력상의 문제로 인해 일반 가나에 #을 붙여 작은 가나를 표시하기로 한다.

단 / 행	ア段 -a	イ段 -i	ウ段 -u	エ段 -e	オ段 -o	단 / 행	ア段 -a	イ段 -i	ウ段 -u	エ段 -e	オ段 -o
ア行	ア	イ	ウ	エ	オ						
-	a	i	u	e	o						
カ行	カ	キ	ク	ケ	コ	ガ行	ガ	ギ	グ	ゲ	ゴ
k-	ka	ki	ku	ke	ko	g-	ga	gi	gu	ge	go
サ行	サ	シ	ス	セ	ソ	ザ行	ザ	ジ	ズ	ゼ	ゾ
s-	sa	si	su	se	so	z-	za	zi	zu	ze	zo
							サ*				ソ*
							tsa				tso
タ行	タ	チ	ツ	テ	ト	タ行	ダ	ヂ	ヅ	デ	ド
t-	ta	tsi	tsu	te	to	d-	da	dzi	dzu	de	do
										テ*	
										tse	
ナ行	ナ	ニ	ヌ	ネ	ノ				ヌ゛		
n-	na	ni	nu	ne	no				dnu		
ハ行	ハ	ヒ	フ	ヘ	ホ	バ行	バ	ビ	ブ	ベ	ボ
h-	ha	hi	hu	he	ho	b-	ba	bi	bu	be	bo
						ハ*行	ハ*	ヒ*	フ*	ヘ*	ホ*
						p-	pa	pi	pu	pe	po
マ行	マ	ミ	ム	メ	モ						
m-	ma	mi	mu	me	mo						
ヤ行	ヤ		ユ	エ	ヨ						
y-	ya		yu	ye	yo						
ラ行	ラ	リ	ル	レ	ロ						
r-	ra	ri	ru	re	ro						
ワ行	ワ				ヲ		ン	ツ/ッ#	ス#	フ#/ブ#/フ*#	
w-	wa				wo		N	Q	s	p	

<표 1> 「전일도인」에 사용된 가나의 로마자 전자

이하에서는 한국어의 음소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표 1>에서 정리된 가나가 개별 음소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3.1. 자음

3.1.1. 파열음

환경 / 자음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종성
		비음 뒤	그 외	
ㄱ	k-	g-	k-	ku
ㄷ	t-	d-	t-	Q
ㅂ	p-	b-		bu

<표 2> ㄱ, ㄷ, ㅂ의 가나 전사 양상

환경 / 자음	어두 초성	어중 초성	
		모음 간	그 외
ㅋ	k-	Qk-/kuk-	k-
ㅌ	t-	Qt-	t-
ㅍ	p-	Qp-	p-

<표 3> ㅋ, ㅌ, ㅍ의 가나 전사 양상

'ㅋ'의 경우 모음 사이에서 ッ+カ行(Qk-) 또는 ク+カ行(kuk-)으로 전사된다. 이것은 한국어의 파열음 가운데 격음의 폐쇄 구간이 평음보다 길다는 음성학적 특징을 촉음(Q) 표기로 반영한 것이다. カ行(k-)에 선행하는 요소로 ク(ku)를 사용한 것은 폐쇄 구간이 형성되는 조음 위치가 연구개임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 가. 급죠키(給足) クブ.チョツ゜キ (kubutsiyoQki) (71)[18]
나. 도로켜(尤) トロク゜キヤ{도로켜} (torokukiya) (45)

3.1.2. 파찰음

자음 \ 모음		ㅏ	ㅕ	ㅗ	ㆍ	ㅜ	ㅡ
ㅈ	어두	tsa	tso		tso/tsa	tsu	
	어중	za	zo		za/du	tsu/dzu	

<표 4> ㅈ과 단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자음 \ 모음		ㅣ	ㅑ	ㅖ	ㅛ	ㅠ
ㅈ	어두	tsi	tsiya	tse	tsiyo	tsiyu
	어중	dzi(zi)	dziya(ziya)	tsiyo/tse/ze[19]	dziyo	dziyu

<표 5> ㅈ과 이중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ㅈ'은 기본적으로 サ*(tsa), ソ*(tso), ツ(tsu), テ*(tse), チ(tsi) 등 파찰음을 초성으로 삼는 가나로 전사되는데, 비음 뒤에서는 초성이 유성 마찰음인 ザ(za), ゾ(zo), ヅ(dzu), ゼ(ze), ヂ(dzi) 등으로 전사된다.[20]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2) 가. 제ᄒᆞ니(祭) テ゜*イハニ (tsehani) (84)
나. 구제(救濟) クテ゜*イ (kutsei) (101)
다. 인종황제 インゾ゜グハグゼ゜イ{인종황제} (inzoguhaguzei) (50)

자음 \ 모음		ㅏ	ㅕ	ㅗ	ㆍ	ㅣ	ㅖ	ㅑ	ㅠ
ㅊ	어두	tsa	tso	tso	tso/tsa/tsu	tsi	tse	-	tsiyu
	모음 간	Qtsa	Qtso (Qtsa)	Qtso	-	Qtsi (tsi)	Qtse Qtsiyo (Qtsiya)	Qtsiya	-

18) 예문의 출전은 安田章(1964) 이후의 관례에 따라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에 실려 있는 영인본의 쪽수로 표시한다.
19) ゼ(ze)는 주로 '시절'의 제2음절 '져'를 표기하기 위해서 쓰였으며, 그 이외에는 '황제'(50), '공젼'(78), '형제'(85, 103), '죵젹'(90), '샹제'(105) 등에서 'ㅇ'에 이어지는 '져'·'제'를 표기하기 위해 쓰였다.
20) 일본어에서는 무성음의 경우 파찰음과 마찰음이 명확히 구별되지만 유성음의 경우 (특히 어중에서) 파찰음과 마찰음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어중의 'ㅈ'을 전사하기 위해 유성 마찰음을 표상하는 ザ(za), ゾ(zo) 등이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 외	tsa	-	tso	tso	tsi	tsiyo tsiya	-	-

<표 6> ㅊ의 가나 전사 양상

3.1.3. 마찰음

환경 / 자음	어두 초성	어중 초성
ㅅ	s-	
ㅎ	h-	

<표 7> ㅅ, ㅎ의 가나 전사 양상

3.1.4. 비음

환경 / 자음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종성
ㄴ	n-(^{d}nu/d-)	n-	ɴ
ㅁ	m-(p-)	m-	mu
ㅇ	-		gu

<표 8> ㄴ, ㅁ, ㅇ의 가나 전사 양상

어두 초성의 'ㄴ'은 기본적으로 ナ行(n-)으로, 'ㄴ', '누', '너' 등의 비저모음에서 ド(do)나 ヌ゛(^{d}nu)로 전사되었다. ナ行(n-) 이외의 가나가 사용된 것은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한 반면, 당시 일본어의 유성 파열음 및 비음의 비음성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여 생긴 결과로 이해된다.[21] 일본인이 어두의 'ㄴ'을 청취했을 때 비음으로 인식할 만큼의 비음성을 얻지 못할 경우(주로 비저모음 앞에서), 동일 조음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음성적 특징을 지닌 ド(do) 혹은 ヌ゛(^{d}nu)로 전사하게 되는 것이다.

(3) 가. 나믄(餘) ナムン (namuɴ) (41)
나. 늘거(老) ドルコ (doruko) (26)
다. 늘근(老) ヌ゛ルクン (^{d}nurukuɴ) (40)

3.1.5. 유음

환경 / 자음	어두 초성(한자어)	어중 초성	종성
ㄹ	r-(n-)	r-	ru

<표 9> ㄹ의 가나 전사 양상

어두에 'ㄹ'을 갖는 한자어의 제1음절이 ラ行(r-)으로 전사되는 예와 ナ行(n-)으로 전사되는 예가 모두 나타난다. 대체로 n-으로 전사되지만 r-로 전사되는 경우도 7번 나타난다.

21) 한국어에서는 반대로 일본어의 유성 파열음을 비음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생긴다. 송민(1986: 37 각주 47)에서도 현대 일본어의 ドカタ(dokata, 土方), ドカン(dokaɴ, 土管)을 한국어에서 '노가다(노가대)', '노깡'으로 차용한 예를 들고 있다.

(4) 가. 례과(禮) ᄂᆞレイクワ (reikuwa) (26)
나. 녜를(禮) ᄂᆞネイルヽ (neiruru) (65)

3.2. 모음

3.2.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어두	-a	-o	-o	-u	-o(ㄷ뒤)	-u	-o(ㄷ뒤)	-i
비어두		-o/-a						

<표 10> ㆍ를 제외한 단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ㅓ'는 다른 단모음과 달리 어두에서 オ段(-o), 비어두에서 オ段(-o)과 ア段(-a)으로 상이한 전사 양상을 보인다. 이는 岸田文隆(2010)에서 설명하였듯이 비어두 음절에서 'ㅏ'와 'ㅓ'의 대립이 약화함과 함께 'ㅓ'가 저모음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비어두 음절(특히 어말)에서 모음이 저모음화하는 현상은 'ㅕ'에서도 나타난다.

(5) 가. 너머져(溢) ᄂᆞノモチヨ (nomotsiyo) (42)
나. 드러가(入) トラカ (toraka) (28)
다. 녀허(入) ニヨハ{녀허} (niyoha) (27)
라. 더드머(索) トヽモ (totomo) (94)

어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ㅍ	ㅎ
ㆍ	ka (ko)	no	ta	-	mo (ma)	pa (po)	so (sa)	tso	tso (tsa)	pa	ha (ho)

<표 11> 어두 위치 ㆍ의 가나 전사 양상

비어두	ㄱ/ㅋ	ㄴ	ㄷ/ㅌ	ㄹ	ㅁ	ㅂ	ㅅ	ㅈ/ㅊ	ㅎ	-
ㆍ	ka	no (nu)	to/ta	ra/ro /ru	ma	-	su	dzu (za)	ha	o/u

<표 12> 비어두 위치 ㆍ의 가나 전사 양상

송민(1986: 138-140)에서는 「전일도인」의 가나 표기를 분석하여 제1음절 'ㆍ'의 비음운화 확산과정을 선행하는 자음의 부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일도인」은 (6가, 나)의 비음운화를 거쳐 (6다) 단계에 있는 것이 된다.

(6) 가. [-비음성, -설정성, -치찰성] 자음부류: ㅎ, ㄱ, ㅂ
나. [-비음성, +설정성, -치찰성] 자음부류: ㄷ, ㄹ
다. [-비음성, +설정성, +치찰성] 자음부류: ㅅ, ㅈ
라. [+비음성, -설정성, -치찰성] 자음부류: ㅁ
마. [+비음성, +설정성, -치찰성] 자음부류: ㄴ

3.2.2. 상향이중모음

	ㅑ	ㅕ	ㅛ	ㅠ	ㅘ	ㅝ
어두	ya	e,ye(yo)	yo	yu	wa[22]	wo
비어두		ya/yo(e,ye)				wa

<표 13> 상향이중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다른 상향이중모음이 비교적 일정한 대응을 보이는 데 비해 'ㅕ'의 경우에는 어두와 비어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어두에서는 エ段(-e)으로 전사되는 경우가 많고 ヨ(yo)로 전사된 예가 소수인데, 특히 'ㅅ, ㅈ, ㅊ, ㅁ' 뒤에서는 ヨ(yo)로 전사된 예가 없다고 한다(다카하시 1998: 91).

어중에서는 ヨ(yo)로 전사된 예와 ヤ(ya)로 전사된 예가 주로 보이고 エ段(-e)으로 전사된 예는 상당히 적다. ヤ(ya)로 전사된 예는 특히 어말에 많은데, 비어두 음절에서 핵모음인 'ㅕ'가 'ㅏ'와 대립을 잃고 저모음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2.1. 참조).

(7) 가. 져머셔 テ゚*モシヤ{져머셔} (tsemosiya) (76)
나. 지져귀며 チテ゚*クイミヨ{지져괴} (tsitsekuiniyo) (118)
다. 지져귀며 チチ゚ヨクイミヨ{지져괴} (tsitsiyokuimiyo) (116)
라. 먹고져 モクコチ゚ヤ (mokukotsiya) (34)
마. 흐터져 フツトチ゚ヨ{흣터져} (huQtotsiyo) (59)

「전일도인」에서 'ㅕ' 가나 전사의 상보적 분포는 'ㅕ'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시기에 'ㅕ'는 음운 변화가 선구적으로 일어나는 비어두 음절에서 [jə] 내지 [jʌ]에 가깝게 실현되고 있었지만 어두 음절에서는 [ɜ] 내지 [je]에 가까운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다카하시 1998: 114-116).

이러한 전사 양상뿐만 아니라 쓰시마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학습서인 「물명(物名)」에서 'ㅕ'에 エ段(-e)을 대응시키는 것이나,[23]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본어 학습서인 「첩해신어」(원간본)에서 エ段(-e)에 'ㅕ' 또는 'ㅖ'를 대응시키는 것[24] 또한 'ㅕ'의 음가가 [ɜ] 내지 [je]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증언한다(김완진 1963).

3.2.3. 하향이중모음

	ㅐ	ㅖ	ㅚ	ㅣ	ㅟ	ㅢ
어두	-ai	-oi	-oi(e)	-ai/-oi(e)	-ui	
비어두		-ai/-oi(e)		-ai/-oi -a		

<표 14> 하향이중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22) ㄱ 뒤에서는 kuwa, ㅈ 뒤에서는 tsa/za, ㅎ 뒤에서는 ha(huha)로 나타난다.
23) 舌 ヘエ (혀) / 骨 ヘ*エ (뼈) / 星 ヘ*エリ (벼리) 등(李康民 1993 참조).
24) 御ねんころ (gonenGoro) 오녕고로 (1:2a) / まいたれども (maitaredomo) 마이따련도모 (1:3a)

3.2.4. 삼중모음

	ㅒ	ㅖ	ㅙ	ㅟ	ㅞ	ㅞ
어두	-iyai	yei/-ei/-e	-	-iyui	-uwai	-
비어두	-	-ye/-ei/-e	-iyoi		-ai	-oye

<표 15> 삼중모음의 가나 전사 양상

이제까지 「전일도인」에서 한국어 음소를 가나로 어떻게 표기하였는지 그 대응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뒤에 이어질 내용의 이해를 위해 전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일본어의 음절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편찬자인 雨森芳洲는 한국어를 가나로 전사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였음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일도인」의 가나 전사에서는 곳곳에서 교정한 흔적 또한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편찬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민하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전일도인」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에 대해 유형별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4. 「全一道人」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

필자는 석사논문을 준비하면서 「전일도인」의 한국어 가나 전사를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곳곳에 검은 먹(일부 붉은 먹)으로 지우거나 고쳐 쓴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어 대역문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가나 전사문도 상당 부분 교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에 수록되어 있는 「전일도인」 영인본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이 영인본은 상당히 선명한 편이지만 흑백으로 되어 있고 군데군데 번진 곳도 있어서 지워진 부분에 원래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는 2014년 4월 3일과 4일에 걸쳐 시가현 나가하마시 다카쓰키정(滋賀縣長濱市高月町)에 소재한 高月觀音の里歷史民俗資料館에 방문하여 「전일도인」을 실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25]

조사 결과 총 103곳에 달하는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 부분을 수집하여 그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다.[26] 이하에서는 필자가 정리한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 내용을 유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편찬자인 雨森芳洲가 한국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전일도인」이 당시의 한국어를 상당히 충실하게 전사한 자료라는 점을 재확

25) 이 조사는 전적으로 고려대학교 장경준 선생님의 호의에 힘입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자료 열람의 편의를 제공해 주신 사사키 에쓰야(佐々木悅也) 님께도 謝意를 표한다.

26) 정리된 교정 내용의 목록은 <부록>에 실려 있다.

인할 수 있을 것이다.

4.1. 한자 및 한자음 관련

4.1.1. 한자의 삭제

「전일도인」은 한국어 표기에서 거의 전적으로 가나만을 사용하였으며 한자의 사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27] 그런데 교정이 베풀어진 부분을 보면 한자를 적었거나 적다가 지운 예들이 보인다.

(8) 가. 셩도에 成ドヲイ (-dowoi) → セ゚グ゚ドヲイ (segudowoi) [033][28]
나. 왕시를 王シルヽ (-siruru) → ワ゚グ゚シルヽ (wagusiruru) [060]
다. 진 적 晋チンソ*ク (-tsiɴtsoku) → チンソ*ク (tsiɴtsoku) [082]
라. 졍을 情テ*グ{졍}ル (-tseguru) → テ*グ{졍}ル (tseguru) [084]
마. 강으로 江カグロ (-kaguro) → カグロ (kaguro) [087]
바. 한쥐 韓ハンヂユイ (-haɴdziyui) → ハンヂユイ (haɴdziyui) [095]

(8가-바)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雨森芳洲는 「전일도인」의 한국어 가나 표기에서 한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나 표기를 전적으로 한국어의 발음을 익히는 수단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4.1.2. '계모(繼母)'의 한자음

「전일도인」에서 한자어 '계모(繼母)'는 총 9번 출현하는데, 이 가운데 ケイモ(keimo)로 전사된 것이 6번, ケイム(keimu)로 전사된 것이 3번이다. 그런데 ケイモ(keimo)로 전사된 6번 중에 4번은 원래 ム(mu)로 적었던 것을 モ(mo)로 교정한 것이다.

(9) 계모 ケイム゚ (keimu) → ケイモ゚ (keimo) [004, 009, 012, 098]

한자 '모(母)'가 포함된 단어는 '계모' 이외에도 '상모(喪母)', '증조모(曾祖母)', '조모(祖母)', '부모(父母)', '모ᄌᆞ(母子)', '젹모(嫡母)', '싱모(生母)'가 나타난다.[29] 이들 단어에서 '모(母)'는 예외 없이 モ(mo)로만 표기될 뿐, ム(mu)로 적은 예나 ム(mu)로 적었다가 モ(mo)로 고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계모'가 '계무'로 실현되는 방언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30] 특정 어휘에서만 나타나는 이 현상은 가나 전사의 대상이 된 한국어 발화를 제공한 정보원의 언어

27) 유일한 예외는 '산듕의 サン中イ (saɴ-i)'(63)뿐이다.
28) 예문의 출전은 <부록>에 실려 있는 교정 목록의 번호를 사용하였다. 이하 동일.
29) '부모'가 3번 출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어는 모두 1번씩만 출현한다.
30)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한민족 언어 정보화'의 '한국 방언'을 참고한 결과 '계모'의 뜻을 갖는 단어 중에 '서무<경북>'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서모(庶母)'의 방언형으로 생각되는데, 비록 '계모'와 어형은 다르지만 '모(母)'라는 한자가 '무'로 실현되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4.2. 초성

4.2.1. 모음 간의 'ヵ'

(10) 극히(極) クッキ{극히} (kuQki) → クヽキ{극히} (kukuki) [066]

앞서 3.1.1.에서 설명했듯이, 모음 간에서 'ヵ'은 ッ+カ行(Qk-) 또는 ク+カ行(kuk-)으로 전사된다. (10)에서 ッ+カ行(Qk-)를 ク+カ行(kuk-)으로 교정한 것은 'ㄱ+ㅎ' 격음화의 결과로 나타난 'ヵ'의 조음 위치가 연구개임을 민감하게 파악한 결과로 생각된다.

4.2.2. 비음 뒤의 'ゞ'

(11) 샹졔(上帝) シヤグテ゜イ (siyagutsei) → シヤグゼイ (siyaguzei) [086]

(11)의 교정은 비음 뒤에서 파찰음이 유성음화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져'·'졔'는 비음 뒤에서 각각 ゼ(ze)·ゼイ(zei)로 전사된다(3.1.2. 참조).

4.2.3. '샤'와 '사'

(12) 비상을(砒霜) ヒ*シヤグル (pisiyaguru) → ヒ*サグル (pisaguru) [092]

(12)는 '비샹을'을 '비상을'로 교정한 것이다. 한자어 '비상(砒霜)'의 '상(霜)'은 15세기부터 '상'이었으므로[31] 옳은 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오류의 動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32]

4.2.4. 어두의 'ㄴ'

「전일도인」에서 어두의 'ㄴ'은 기본적으로 ナ行(n-)으로, 드물게 ダ行(d-)으로 전사되었는데, ヌ゛(ⁿnu)로 전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느', '누'를 ド(do)로 적었다가 ヌ゛(ⁿnu)로 고친 예가 두 번 발견된다.

(13) 가. 능히:(能) ド゜グヒイ{능히} (doguhii) → ヌ゛グヒイ{능히} (ⁿnuguhii) [014]
나. 누워(臥) ド゜ワ (dowa) → ヌ゛ワ (ⁿnuwa) [068]

---

31) 霜 서리 상(「훈몽자회」(1527) 상:1b)

32) 이 부분은 먹으로 지우지 않고 교정한 내용을 적은 종이조각을 위에 덧붙여서 교정하였는데, '샹'이라는 표기가 틀렸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하지는 못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ㅅ'의 조음위치에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전일도인」에 전사된 한국어의 마찰음과 파찰음은 이 한 예를 제외하면 'ㅅ'의 조음 위치를 전혀 혼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가)는 '능히'가 처음 출현하는 예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8번 나타나는 '능히'는 모두 ヌ゛グヒイ(ⁿnuguhii)로 전사되었다.

'눕-'의 활용형은 4번 출현하는데, 제1음절이 ヌ゛(ⁿnu)로 전사된 것이 2번, ド(do)로 전사된 것이 2번 나타난다. (13나)의 교정은 한국어에서 어두의 'ㄴ'이 비음성은 약하지만 유성 파열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1.4. 참조).

4.2.5. 어두의 'ㄹ'

(14) 냥쇼이의　　リヤグ.シヨイウイ (riyagusiyoiui) → ニヤグ.シヨイウイ (niyagusiyoiui) [056]

어두에 'ㄹ'을 허용하지 않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전일도인」에서 어두의 'ㄹ'은 대체로 ナ行(n-)으로 전사되었지만 ラ行(r-)로 전사되는 예도 있다(3.1.5. 참조).

4.3. 중성

4.3.1. 어중의 'ㅓ'

(15) 가. 니르럿더니(至) ニルラツトニ (niruraQtoni) → ニルラツタニ (niruraQtani) [077]
　　나. 겨룻더니(爭)　キヨロツ#トニ{결오더니} (kiyoroQtoni)
　　→ キヨロツ#タニ{결오더니} (kiyoroQtani) [081]

'ㅓ'가 어중에서 オ段(-o)나 ア段(-a)로 전사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는데(3.2.1. 참조), '-더니'의 경우 (15가, 나)를 포함하여 5번의 예를 제외하면 70여 번이 모두 トニ(toni)로 전사되어 있어 ト(to)를 タ(ta)로 교정한 (15가, 나)의 예는 일반적인 경향과 다른 방향임을 알 수 있다.[33]

4.3.2. 'ㆍ'의 인식

1) 어두

(16) 가. ᄉᆞ릐　ス#トルイ{쏠의} (storui)　→ ス#タルイ{쏠의} (starui) [044]
　　나. ᄉᆞ리　ス#トリ (stori)　→ ス#タリ (stari) [045]
　　다. ᄉᆞ를　ス#トルヽ (storuru)　→ ス#タルヽ (staruru) [046, 047, 048]
　　라. ᄆᆡ여　モヤ{ᄆᆡ여} (moya)　→ マヤ{ᄆᆡ여} (maya) [053]
　　마. 먹게 ᄒᆞ고 モクカイハコ (mokukaihako) → モクカイホコ (mokukaihoko) [070]

33) 와세다대학도서관 핫토리문고(早稻田大學圖書館服部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역(朝鮮語譯)」(1750년 필사)은 한국어를 가나로 전사한 방식이 「전일도인」과 아주 유사하다. 여기에서는 '-더니'가 トニ(toni)로 3번 전사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20여 번이 모두 タニ(tani)로 전사되어 있어 「전일도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일도인」에서 ‘ᄉᆞᆯ’은 모두 6번 출현하는데, 1번 ス#タ(sta)로 전사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번은 (16가-다)와 같이 ス#ト(sto)로 전사했다가 ス#タ(sta)로 교정한 것이다. 이는 제1음절에서 ‘ㄷ(ㅊ)’을 초성으로 갖는 ‘ㆍ’ 음절이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 ア段(-a)으로 표기된다는 기존의 설명을 의심하게 한다.[34]

제1음절에 ‘ᄆᆞ’를 갖는 경우에는 マ(ma)가 2번, モ(mo)가 16번으로 モ(mo)로 전사되는 경향이 강한데, ‘ᄆᆡ’의 경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ᄆᆡ양’(每, 5번), ‘ᄆᆡ여’(縛, 2번), ‘ᄆᆡ이’(甚, 2번)를 비교해 보면 ‘ᄆᆡ양’은 5번 모두 マヤグ(mayagu)로, ‘ᄆᆡ여’는 2번 모두 マヤ(maya)로 나타나고 ‘ᄆᆡ이’는 2번 모두 モイ(moi)로 나타난다. 따라서 ‘ᄆᆡ’의 ‘ᄆᆞ’는 モ(mo)가 아닌 マ(ma)로 전사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16라)의 교정 양상은 하향이중모음 ‘ㆍㅣ’의 경우 더 일찍 ‘ㆍ’의 비음운화를 경험한다는 송민(1986)의 설명과 합치한다.

(16마)는 ‘ᄒᆞ고’의 ‘ᄒᆞ’를 ハ(ha)로 전사했다가 ホ(ho)로 교정한 예이다. ‘ᄒᆞ고’는 모두 51번 나타나는데 31번은 ハコ(hako)로, 20번은 ホコ(hoko)로 전사되어 ハコ(hako)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고’ 앞을 제외한 다른 환경의 ‘ᄒᆞ’는 모두 ハ(ha)로 전사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35]

2) 어중

(17) 가. ᄭᅴᄃᆞ라 ス#カイ̥トラ{ᄭᅴᄃᆞ라} (skaitora) → ス#カイ̥タラ{ᄭᅴᄃᆞ라} (skaitara) [025]
나. 다ᄃᆞ라 タ̥トラ (tatora) → タ̥タラ (tatara) [059]

(17가-다)의 예는 모두 제2음절 이하에 ‘ㆍ’를 갖는 단어인데, ‘ᄃᆞ’를 ト(to)로 전사했다가 タ(ta)로 교정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음절 이하의 ‘ᄃᆞ’는 30여 번 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 ト(to)로 전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교정의 방향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36]

4.3.3. 어두·어중의 ‘ㅖ’

1) 어두

앞서 3.2.2.에서 설명하였듯이 ‘ㅖ’는 어두에서 エ段(-e)로 전사되는 예가 많고 ヨ(yo)로 전사되는 예는 소수이다. 그런데 어두에서 ヨ(yo)로 적었던 것을 エ段(-e)으로 교정한 예가 발견된다.

(18) 가. 열흘 ヨ̥ルフル{열흘} (yoruhuru) → エ̥ルフル{열흘} (eruhuru) [022]

---

34) ‘ᄉᆞᆯ’의 ‘ᄉᆞ’가 결국 ス#タ(sta)로 교정되었으나 이러한 유동을 보인 것은 ‘ㆍ > ト’의 변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수의적인 변동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원적으로 제1음절에 ‘ᄉᆞ’를 갖는 ‘ᄉᆞᄅᆞᆷ’(2번)은 모두 タ(ta)로 전사되어 있다.

35) 「조선어역」에서는 ‘ᄒᆞ고’가 모두 23번 나타나는데, ハコ(hako)로 전사된 것이 4번, ホコ(hoko)로 전사된 것이 19번으로 ホコ(hoko)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어미 ‘-고’ 앞에서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역행동화의 반영일 가능성도 있다.

36) 그러나 제2음절 이하 ‘ᄃᆞ’의 예는 거의 모두 ‘아ᄃᆞᆯ’이라서 ト(to)라는 표기만으로는 ‘ᄃᆞ’를 전사한 것인지 ‘ド’를 전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문제이다.

나. 념녀ᄒᆞ여　ニ̥ヨ̥ムニヨ (niyomuniyo) → ネ̥ムニヨ (nemuniyo) [051]
다. 벼슬　ヒ̥*ヨ̥スル (piyosuru) → ペ̥*スル (pesuru) [013]
라. 쳐(打)　チ̥ヨ̥{쳐} (tsiyo) → テ̥*{쳐} (tse) [023, 057]
마. 셰(緖)　シ̥ヨ̥イ{셰} (siyoi) → セ̥イ{셰} (sei) [029]

(18가)는 초성이 없는 'ㅕ'의 예이다. (18나, 다, 라)는 '념녀'와 '벼슬', '쳐'(打)의 예인데, 모두 다 처음으로 출현하는 예라는 것이 주목된다. '념녀'(2번)의 경우 예가 적지만 '벼슬'(10번)이나 '쳐'(8번)의 경우는 처음 전사할 때 ヨ(yo)와 エ段(-e) 사이에서 망설이다 エ段(-e) 쪽으로 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18마)의 '셰' 또한 어두의 '셔' 또는 '셰'를 シヨ(siyo)로 전사한 다른 예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예들은 다카하시(1998: 91)에서 'ㅅ, ㅊ' 뒤에는 ヨ(yo)로 전사된 예가 없고, 어두 위치에서 'ㅕ'가 전설화된 [je]로 실현되었을 것이라고 한 설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즉, 이 당시 한국어에서 'ㅕ'는 어두에서 어느 정도 전설화된 음가로 발음되었지만, 항상 안정적인 [je]로 실현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어중

위와는 반대로, 어중에서 'ㅕ'는 ヨ(yo)로 전사되는 예가 많고 エ段(-e)으로 전사되는 예는 소수이다. 그런데도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ヨ(yo)로 적었던 것을 エ段(-e)으로 교정한 예가 발견된다.

(19) 가. 싀어미를　ス̥イ̥ヲ̥ミ{싀어미} (suiwomi) → ス̥エ̥ミ{싀어미} (suyemi) [015]
나. 어엿비　ヲ̥ヨ̥ツヒ* (woyoQpi) → ヲ̥エ̥ツヒ* (woyeQpi) [034]
다. 방영　ハ*グ.ヨ̥グ{영} (paguyogu) → ハ*グ.エ̥グ{영} (paguyegu) [089]
라. 샹셔(尙書)　シヤグ.シ̥ヨ̥{샹셔} (siyagusiyo) → シヤグ.セ̥イ{샹셔} (siyagusei) [026]
마. 쥬셔라(朱緖)　チユ.シ̥ヨ̥ラ{쥬셔라} (tsiyusiyora) → チユ.セ̥イラ{쥬셔라} (tsiyuseira) [027]
바. 쥬셔로　チユシ̥ヨ̥ロ (tsiyusiyoro) → チユセ̥イロ (tsiyuseiro) [028]
사. 브쳐(送)　フ*ツチ̥ヨ̥{븟텨} (puQtsiyo) → フ*ツテ̥*{븟텨} (puQtse) [036]
아. 샹쳐니(上天)　シヤグチ̥テ*ニ{샹쳔이} (siyagutsitseni)
→ シヤグテ*ニ{샹쳔이} (siyagutseni) [042]

(19가)는 '싀어미'에서 '어'의 전사를 イヲ(iwo)에서 エ(ye)로 교정하였다. 음성적으로 선행하는 반모음의 영향을 받아 '여'로 실현되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14번 나타나는 '싀어미' 가운데 처음으로 출현하는 예이다.

(19나)는 '어엿비'의 '여'를 ヨ(yo)에서 エ(ye)로 교정하였다. 이것은 4번 출현하는 '어엿-' 포함 어형 중에 두 번째로 나타난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어엿-'은 '여'가 ヨ(yo)로 전사되어 있고, (19나)의 예 이후로는 모두 エ(ye)로 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영'이라는 음절은 4번 나타나는데, 1번을 제외하면 모두 エグ(yegu)로 전사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다)로, ヨグ(yogu)로 적었던 것을 エグ(yegu)로 교정한 것이다.

(19라-바)는 '셔'의 전사인데, シヨ(siyo)에서 セイ(sei)로 교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반모음 イ(i)의 존재이다. (19라)의 '셔(書)'나 (19마)의 '셔(緖)'는 모두 遇攝

에 속하며 원래부터 韻尾가 없는 한자이다. 달리 말하면 하향이중모음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더 논의하기가 어렵다.[37]

(19사, 아)는 '쳐'와 관련된 것인데, (19사)에서는 '쳐'를 チヨ(tsiyo)로 적었다가, (19아)에서는 チヨ(tsiyo)의 첫 글자인 チ(tsi)를 적다가 지우고 テ*(tse)로 교정하였다는 점에서, (18라)에 보였던 어두의 경우와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두에서든 어중에서든 'ㅕ'를 포함한 음절의 전사를 ヨ(yo)에서 エ(ye)로 수정하려고 한 일관성이 포착된다. 여기에는 편찬자의 규범적인 발음에 대한 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3.4. 어말의 'ㅕ'

연결어미 '-어'는 선행 요소에 반모음 '-ㅣ'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여'로 실현되는데, 「전일도인」에서는 이 어미가 ヤ(ya)로 전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ᄒᆞ여', '-셔', '-고져'는 예외 없이 ハヤ(haya), シヤ(siya), コチヤ(kotsiya)로 전사된다. 반면에 '며'는 ミヨ(miyo)로만 전사된다. 그 밖의 환경에서는 ヤ(ya)가 우세하지만 ヨ(yo)로 전사되는 예들도 있어 판단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존재했던 듯하다.

(20) 가. 솔펴(察) ソル.ヒ*ᷯヨ{솔펴} (sorupiyo) → ソル.ヒ*ᷯヤ{솔펴} (sorupiya) [002, 091]
나. 드ᄃᆡ여 トテイᷯヨ{드ᄃᆡ여} (toteiyo) → トテイᷯヤ{드ᄃᆡ여} (toteiya) [008, 017, 021]
다. 즐겨(樂) ツルキᷯヨ{줄겨} (tsurukiyo) → ツルキᷯヤ{줄겨} (tsurukiya) [030]
라. 끌혀(沸) クルヒᷯヨ{끌혀} (kuruhiyo) → クルヒᷯヤ{끌혀} (kuruhiya) [031]
마. 끄려(沸) クリᷯヨ{끌혀} (kuriyo) → クリᷯヤ{끌혀} (kuriya) [049]
바. 놀려(飛) ノルリᷯヨ{놀려} (noruriyo) → ノルリᷯヤ{놀려} (noruriya) [054]
사. 두려(恐) トリᷯヨ{두려} (toriyo) → トリᷯヤ{두려} (toriya) [055]
자. 녀겨 ネキᷯヨ (nekiyo) → ネキᷯヤ (nekiya) [077]
차. cf) 불러 フ*ルᷮラ{불러} (purura) → フ*ルᷮロ{불러} (pururo) [080]

(20가-자)의 예는 모두 ヨ(yo)로 전사했던 것을 ヤ(ya)로 교정한 것이다. 교정의 방향이 이처럼 일방향적인 것은 실제로 반모음 'ㅣ'가 선행하는 연결어미 '-어'의 음성적 실현이 상당히 저모음적이었거나, 편찬자가 ヤ(ya)를 좀 더 규범적인 발음으로 인식했음을 암시한다. 반면 반모음 'ㅣ'가 선행하지 않는 (20차)의 예에서는 반대로 ア段(-a)에서 オ段(-o)으로 교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4.3.5. 어말의 '-면'

(21) 가. 이시면 イシᷰミᷯヨン (isimiyoɴ) → イシᷰメン (isimeɴ) [003]

37) 이것은 한국한자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j/의 삽입 및 탈락 현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遇攝에 속하는 글자 중에는 '뎨(猪)', '예(譽)'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韻母가 'ㅖ'로 반영된 글자들이 있다(정칙은 'ㅕ'). 반대로 蟹攝字 중에는 '셔(西)'와 같이 韻母가 'ㅕ'로 반영된 글자들이 있다(정칙은 'ㅖ'). 이것은 필자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서는 일단 後考를 기약하기로 한다.

나. 어듸(드)면　ヲトイ̥ミ̥ヨン (wotoimiyoN) → ヲトイ̥メン (wotoimeN) [067, 071]

ミヨ(miyo)로만 전사되는 연결어미 '-며'와 달리 연결어미 '-면'(21번)은 メン(meN)으로만 전사된다. 이것은 종성의 'ㄴ' 때문일 것이다.[38] 그런데 'ㄴ'으로 인한 모음의 전설화 내지 단모음화는 극단적인 것은 아니고 약간 모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면'의 '며'를 ミヨ(miyo)로 전사했다가 メ(me)로 교정했기 때문이다.[39]

(21가)는 특히 연결어미 '-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4.3.3.의 (18, 19)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출현형에서만 망설인 흔적이 보이고 이후에는 유동이 없이 전사된다는 점에서 같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4.4. 종성

4.4.1. 비음

일본어에는 비음 음소가 ン[N]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후행 요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어 [m], [n], [ŋ]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음성적 실현 때문에 오늘날에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화자들은 조음 위치에 따른 음절 말 비음을 구별하기 어려워하는데, 이것은「전일도인」이 편찬될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가. ネ̥ンブイ{념뷔} (neNbui) → ネ̥ムブイ{념뷔} (nemubui) [090, 093]
나. シヤグ.ガ̥ムムリ (siyagugamumuri) → シヤグ.ガ̥グムリ (siyagugagumuri) [038]
다. シンナ̥ムグル{남글} (siNnamuguru) → シンナ̥ングル{남글} (siNnaNguru) [065]

(22가)에서는 '념'의 종성을 ン(N)으로 적었다가 ム(mu)로 고쳤다. (22나)는 '샹강 므리'(湘江)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강'의 종성을 ム(mu)로 적었다가 グ(gu)로 고쳤다. 이것들은 모두 3.1.4.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성에서 'ㅁ'은 ム(mu), 'ㄴ'은 ン(N), 'ㅇ'은 グ(gu)로 전사하는 경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교정한 것이다.

(22다)는 '신낡(神木)+을' 구성에서 제1음절의 종성을 ム(mu)로 적었다가 ン(N)으로 고친 것이다. 이것은 '남'의 종성을 'ㄴ'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ㅁ'이 'ㄱ'에 역행 동화를 입어 'ㅇ'으로 실현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40] 이러한 예를 보면 상당히 현실 발음에 충실하게 가나 전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4.2. 유음

38) 「전일도인」에서는 'ㅚ'나 'ㆎ'가 ヨ(ye)로 전사되어 단모음화를 암시하는 예가 보이는데, 이것들은 모두 'ㄴ'이 후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다카하시 1998: 118-119). 'ㄴ'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는 김완진(1963)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39) 「조선어역」에서는 연결어미 '-면'을 예외 없이 メヨン(meyoN)으로 전사하고 있다. 이 또한 '-면'의 모음 'ㅕ'가 갖는 음성적 모호성을 보여준다(岸田文隆 2010).

40) 물론 원칙대로라면 'ㅇ+ㄱ'의 연쇄는 ググ(gugu)로 적어야 한다. 자형상 ム(mu)를 グ(gu)보다는 ン(N)으로 고치는 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동화된 'ㅇ'의 음가를 'ㄴ'과 혼동했을 수도 있다.

1) ‘ㄹ’의 인식

(23) 가. 들헤(野) トロホイ (torohoi) → トルホイ (toruhoi) [037]
나. 일ᄒᆞ러(曰) イロカロ (irokaro) → イルカロ (irukaro) [064]

종성에서 ‘ㄹ’은 예외 없이 ル(ru)로 전사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23가, 나)와 같이 ロ(ro)를 ル(ru)로 교정한 예가 두 번 보인다. 종성의 ‘ㄹ’을 ロ(ro)로 청취하게 된 動因은 알기 어려우나, 단순한 실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41)]

2) ‘ㄹ’의 길이

(24) 가. 모래(沙) モルライ{몰에} (morurai) → モライ{몰에}クワ (morai) [052]
나. 부리지(使)フ*ルリチ{부리지} (pururitsi)→ フ*リチ{부리지} (puritsi) [079]
다. 기레셔 キルレシヤ (kiruresiya) → キレシヤ (kiresiya) [083]
라. 버브로뻐 ホ*ブルロブ#ソ (pobururopso)→ ホ*ブロブ#ソ (poburopso) [097]
마. cf) 흘릴 フリリル (hurririru) → フルリル (hururiru) [103]

한국어의 유음(ㄹ)이 종성과 초성에서 연속되는 경우([ll])는 사실 음성적으로는 자음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l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어 모어 화자들에게는 길이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24가-라)는 모두 ‘몰래’, ‘불리지’, ‘길레셔’, ‘버블로뻐’와 같이 ル+ラ行(rur-)으로 전사되었던 것들에서 ル를 삭제하여 ‘모래’, ‘부리지’, ‘기레셔’, ‘버브로뻐’와 같이 고쳤는데, 이는 ‘ㄹ’의 길이를 착각했던 것을 교정한 것이다.

(24마)는 フリ(huri)까지 적다가 リ(ri)를 ル(ru)로 고쳐서 ‘흘릴’ フルリル(hururiru)로 고쳤는데, 이는 앞의 예들과는 반대로 [l :]을 [l]로 인식했던 것을 교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5.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요소

1) 체언류

(25) 가. 아내(妻) アンハイ (aɴhai) → アナイ (anai) [050, 061]
나. ᄌᆞ셰히 ソ*セイ{ᄌᆞ시히}ヒイ (tsoseihii) → ソ*セイ{ᄌᆞ시히} (tsosei) [074]
다. 일호미 쇼요 イルフミシヨヨ (iruhumisiyoyo) → イルホミシヨヨ (iruhomisiyoyo) [100]
라. 일호미 우니라 ウルフミ。ウニラ (uruhumi unira) → イルホミ。ウニラ (iruhomi unira) [101]

「전일도인」 본문에서 ‘아내(<안해)’라는 어휘는 모두 27번 출현하는데 2번은 アンハイ(aɴhai)로, 나머지 25번은 アナイ(anai)로 전사되어 있다. 그런데 25번 중의 2번은 (25가)와 같이 アンハイ(aɴhai)를 アナイ(anai)로 교정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에도 ‘안해’와 ‘아내’

41) 「조선어역」에서도 종성의 ‘ㄹ’을 ロ(ro)로 전사한 예가 보인다(岸田文隆 2008).
ᄒᆞᆫ가지일 거시니 ハンカチロコシニ (haɴkatsirokosini) (1:27b)

가 발화상에서 수의적인 교체를 보였음을 뜻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자세히'의 뜻을 갖는 부사로는 'ᄌᆞ셰', 'ᄌᆞ셰히'가 둘 다 쓰였는데, (25나)에서는 'ᄌᆞ셰히'를 적었다가 'ᄌᆞ셰'로 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름'을 뜻하는 단어는 모두 6번 나타나며 모두 '일홈' イルホム(iruhomu)로 전사되었는데, 그 가운데 2번은 (25다, 라)와 같이 '일훔'으로 적었던 것을 '일홈'으로 교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홈' 또한 '아내'와 같이 수의적 교체를 보였으며, 편찬자는 '일홈'을 더 규범적인 발음으로 생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조사류

(26) 가. 아의(娥) アヲイ{아ᄋᆡ} (awoi) → ア.ウイ{아ᄋᆡ} (aui) [043]
나. ᄇᆡ를(船) ハ*イロル{ᄇᆡ를} (pairoru) → ハ*イルル{ᄇᆡ를} (pairuru) [040]
다. 상ᄉᆞ를(喪事) サグソロヽ (sagusororo) → サグソルヽ (sangusoruru) [099]

(26가)는 '아ᄋᆡ'를 '아의'로 교정한 것이다. 여기서 '아(娥)'는 사람 이름이므로 속격조사를 음성모음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다.[42] (26나, 다)는 대격조사를 음성모음형으로 바꾼 것이다. 이 자료의 대격조사 가운데 ロル(roru)로 표기되는 '를'은 5번밖에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215번은 모두 ルヽ(ruru)로 표기되는 '를'이다.

3) 용언류

'드리-'(獻)라는 동사는 7번 출현하는데 항상 テレ(tere)로 전사된다. 「전일도인」에서 다른 '드'는 모두 ト(to)로 전사되는 것과 달리 이 어휘에서만 テ(te)로 전사되는 것은, 다카하시(1998: 75-77)에서 지적한 대로 'ㅣ' 역행동화로 인해 제1음절이 '듸'에 가깝게 실현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7) 가. 드릴(獻) トリル{드릴} (toriru) → テレル{드릴} (tereru) [019]
나. 드리니(獻) トリニ (torini) → テレニ (tereni) [020, 024, 063]
다. 드리지(入) テリチ (teritsi) → トリチ (toritsi) [073]

그런데 (27가, 나)는 모두 '드리-'(獻)를 トリ(tori)로 적었다가 テレ(tere)로 고친 것이다. 이것은 '드리-'(獻)와 'ㅣ' 역행동화를 겪은 어형인 '듸리-'가 수의적으로 교체를 보였음을 암시한다. 특히 의미는 다르지만 음상은 동일한 단어 '드리-'(入)의 제1음절로 テ(te)를 적었다가 ト(to)로 고친 (27다)의 예 또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4.6. 교정 결과가 부자연스러운 경우

「전일도인」 한국어 가나 전사에서 교정된 부분 중에는 맥락상 교정 이전의 내용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발화를 제공한 정보원과의 의사소통에서 생긴

42) 이 부분의 맥락은 '아의 동생이 세 사람이 다 이미 죽었는지라'이고, 해당하는 일본어 대역문은 '趙娥か兄弟三人皆已にしにけり'이다.

문제일 수도 있고, 편찬자의 청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8) 가. ᄌᆞ시기 외로오믈 ソ*シ゚クイ゚ロヲムル{외로오믈} (tsosikuirowomuru)
→ ソ*シキ゚。ヲイロヲムル{외로오믈} (tsosiki woirowomuru) [010]
나. 셰샹이 セシヤグイ゚{셰샹의} (sesiyagui) → セシヤギ{셰샹의} (sesiyagi) [011]
다. 며ᄂᆞ리ᄃᆞ리 メノリ゚ドリ (menoridori) → メノル゚ドリ (menorudori) [016]
라. 가져ᄂᆞᆫ カテ゚ンノン{가져ᄂᆞᆫ} (kateNNON) → カテノン{가져ᄂᆞᆫ} (kateNON) [032]
마. 아피 アツフ*イ゚{알피} (aQpui) → アツピ*{알피} (aQpi) [035]
바. 온모미 ヲンモム゚イ゚{왼몸이} (woNmomui) → ヲンモミ゚{왼몸이} (woNmomi) [062]

(28가)는 'ᄌᆞ시긔 외로오믈'을 적으려다가 'ᄌᆞ시긔'를 'ᄌᆞ시기'로 교정하여 'ᄌᆞ시기 외로오믈'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맥락은 '어미 가로되 그 아비 저 자식의 외로움을 위하여'이므로 교정 결과가 더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43]

(28나)는 '셰상의'를 '셰상이'로 교정한 것이다. 본래 맥락은 '이는 세상의 계모가 되어'인데다,[44] 오른쪽의 한글 방훈으로 '셰샹의'가 있어 교정 결과가 더 부자연스럽다.

(28다)는 '며ᄂᆞ리ᄃᆞ리'를 '며ᄂᆞᆯᄃᆞ리'로 교정한 것인데, '며ᄂᆞ리'가 '며ᄂᆞᆯ'로 실현될 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워 교정 결과가 더 어색하다.[45]

(28라)는 '가젼ᄂᆞᆫ(<가졋ᄂᆞᆫ)'을 '가져ᄂᆞᆫ'으로 교정한 것인데, 이 부분은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국을 앗아'라는 맥락에서[46] '가지고 있는'에 해당하므로 '-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정 결과가 부자연스럽다.

(28마, 바)는 모두 모음을 'ㅢ'에서 'ㅣ'로 수정한 것이다. 전자는 '두효의 집 문 앞의 물가에 이르러'의 맥락이므로 속격조사인 '의'가 더 자연스럽고,[47] 후자는 '온몸에 다 상한 허물이 있더라'의 맥락이므로 역시 처격조사인 '의'가 더 자연스럽다.[48]

4.7. 기타

1) 착오가 있는 경우

(29) 가. 브도(不道) フ*ル゚ト (puruto) → フ*ト (puto) [001]
나. 블효ᄒᆞ믈 フ*ルピ*ヨハムル (purupiyohamuru)
→ フ*ルピヨハムル (puruhiyohamuru) [041]
다. 나가면 ナカイ゚メン{나가면} (nakaimeN) → ナカメン{나가면} (nakameN) [006]
라. 무로되(問) ムト゚トイ (mutotoi) → ムロ゚トイ (murotoi) [076]
마. 과늘 가지고 그 죠ᄒᆞᆫ 과늘 クワヌル。パ*ツ゚コ。ノ゚ムル゚パ*ツ゚コ{밧고}。ワヌル

43) 일본어 대역문은 '母のいへるはその父かあの子共のみなしこなるかために'이다.
44) 일본어 대역문은 '是は世上の繼母となり'이다.
45) '며ᄂᆞ리ᄃᆞᆯ히'(「이륜행실도(옥산서원본)」(1518) 8a), '며ᄂᆞ리들흘'(「이륜행실도(옥산서원본)」(1518) 31b)과 같은 예를 보면 '며ᄂᆞᆯᄃᆞ리'의 현실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며ᄂᆞᆯ톱'(「구급간이방」(1489) 7:30b)과 같은 예도 있지만 합성어라는 차이가 있다.
46) 일본어 대역문은 'その妻もちたる羹をうはひ'이다.
47) 일본어 대역문은 '杜孝か門の前の水きわにいたり'이다.
48) 일본어 대역문은 '惣身にみなきづゝきたるあとありける'이다.

→ クワヌル。カチコ。ク。チヨホンクワヌル [069]

(29가)는 범례에서 ㄹ 탈락의 예로 한자어 '부도(不道)'를 든 것인데, ル를 적었다가 지웠다.

(29나)는 '블효(不孝)'의 '효(孝)'를 ヒ*ヨ(piyo)로 적었다가 ヒヨ(hiyo)로 고쳤다.

(29다)는 '나가이면/나개면'을 '나가면'으로 교정한 것인데, '어미 나가면 세 ᄌᆞ시기 다 치우리이다'의 맥락이므로 (반)모음 'ㅣ'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49]

(29라)는 ムト(muto)까지 적었다가 ト(to)를 ロ(ro)로 고치고 トイ를 적은 것으로 보인다.

(29마)는 교정 부분을 종이조각에 적어서 붙였는데, 해당 부분의 맥락이 '(그 놈이 몹쓸) 과늘 가지고 그 죠ᄒᆞᆫ 과늘 (바꿔 팔았더니)'인 것으로 보아 같은 장의 다른 내용과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0]

2) 써야 할 내용을 빠뜨린 경우

(30) 가. ᄒᆞᆫ ᄌᆞ식만 ソンソ*シクマン (soNtsosikumaN) → ハンソ*シクマン (haNtsosikumaN) [005]
나, 그 지아븨 チ。チアブイ{지아븨} (tsi tsiabui)
→ ク。チアブイ{지아븨} (ku tsiabui) [018]
다. 못ᄒᆞ니라 ハモツハニラ (hamoQhanira) → モツハニラ (moQhanira) [088]
라. 일호미 우니라 ウルフミ。ウニラ (uruhumi unira) → イルホミ。ウニラ (iruhomi unira) [101]

(30가)는 'ᄒᆞᆫ' ハン(haN)을 빠뜨리고 이어지는 'ᄌᆞ식'의 'ᄌᆞ' ソ*(tso)를 적으려다가 고친 것으로 보인다.

(30나)는 '그' ク(ku)를 빠뜨리고 이어지는 '지아븨'의 '지' チ(tsi)를 적으려다가 고친 것으로 보인다.

(30다)는 '못' モツ(moQ)을 빠뜨리고 이어지는 'ᄒᆞ니라' ハニラ(hanira)를 적으려다가 고친 것으로 보인다.

(30라)는 '일호미' イルホミ(iruhomi)를 빠뜨리고 이어지는 '우니라'(雲) ウニラ(unira)를 적으려다가 고친 것으로 보인다.

3) 발음에 가까운 표기로 바꾼 경우

(31) 가. 아ᄒᆞ늬(九十) アホンヌイ{아혼의} (ahoNnui) → アホヌイ{아흔의} (ahonui) [072]
나. 바닐(半日) ハ*ンル{반일} (paNru) → ハ*ニル{반일} (paniru) [093]
다. 기레(路) キルエイ (kiruyei) → キレイ (kirei) [058]
라. 기레셔(路) キルエイシヤ (kiruyeisiya) → キレシヤ (kiresiya) [075]

(31가, 나)는 '아혼'과 '반'에 '의'와 '일'이 더해진 어형인 '아혼의'와 '반일'을 적는 과정에서, 발음대로 적지 않고 '아혼', '반'까지 적었다가 '아ᄒᆞ늬', '바닐'에 해당하는 표기로 교정

49) 일본어 대역문은 "母出したまはゝ三人の子皆さむかるへし"이다.
50) 원래 종이에 적힌 부분은 '(그 놈이 몹쓸) 과늘 밧고 ᄂᆞ믈 밧고 (팔았더니)'와 같이 되어 맥락이 닿지 않는다. 일본어 대역문은 'そのものやくにたゝぬ棺をもつてよきくわんにかへ賣しか'이다.

한 것으로 생각된다.

(31다, 라) 또한 '길+에'를 '길'과 '에'로 분리해서 적었다가 '기레'에 해당하는 표기로 교정한 듯하다.

4) 문장을 수정하려고 한 경우

(32) 가. 휴낙ᄒᆞ여(凶惡) ヒユ.ナク{흉악}パト (hiyunakuhato)
→ ヒユ.ナク{흉악}パヤ (hiyunakuhaya) [039]
나. 글(文) パンヨクル (haɴyokuru) → クル (kuru) [096]
다. 방ᄌᆞ하니 ハ*グゾハコニ (pagutsohakoni) → ハ*グゾハニ (pagutsohani) [102]

(32가)는 '흉악ᄒᆞ더(?)'라고 적던 것을 '흉악ᄒᆞ여'로 고친 것인데, '흉악ᄒᆞ더니'라고 적으려다가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

(32나)는 ハンヨ(haɴyo)를 삭제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용(韓用)'의 이름을 적으려다 지운 것으로 보인다.[51]

(32다)는 '방ᄌᆞ하고'라고 적었다가 '고'를 지우고 '니'를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5) 그 외

(33) 가. 세 ᄌᆞ시기 ソイゾシク (soizosiku) → ソイゾシキ (soi zosiki) [18]
나. 버븨 쟝유 이시니 ホ*ブイチヤギユ。イシ (pobuitsiyagiyu isi)
→ ホ*ブイチヤギ.ユイ{쟝유}。イシニ (pobui tsiyagiyui isini) [084]

(33가)는 맥락상 '세 ᄌᆞ식 다 치우리이다'를 '세 ᄌᆞ시기 다 치우리이다'로, (33나)는 '버븨 쟝유 이시(니)'를 '버븨 쟝유 이시니'로 교정한 것인데, 둘 다 주격조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전일도인」에서 한국어를 가나로 전사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교정이 행해진 부분을 정리하여 유형별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자의 사용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가나 표기가 전적으로 발음을 익히는 데 쓰일 것을 의도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초성에서는 조음 위치나 비음화, 어두 비음이나 유음의 음성적 특징 등을 정밀히

51) 맥락은 '한용은 꿈에 문챵군이 [삭제된 내용]글 짓는 법으로써 가르치니'이다. '한용에게'와 같은 것을 적으려다가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반영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셋째, 중성에서는 ‘ㆍ’ 및 ‘ㅕ’와 관련하여 많은 교정이 이루어졌다. ‘ㆍ’는 전반적인 비음운화 양상과 합치하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ㅕ’에 대해서는 어두·어중의 경우 ヨ(yo)에서 エ段(-e)으로, 어말의 경우 ヨ(yo)에서 ヤ(ya)로 교정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규범적인 발음에 대한 편찬자의 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종성에서는 비음과 유음이 종성에 쓰일 때 일본어 모어 화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교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도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요소,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교정이 베풀어져 편찬자가 꼼꼼하게 초고를 수정했음을 알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일도인」이 당시의 한국어를 충실하게 전사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일도인」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은 편찬자인 雨森芳洲의 한국어 학습관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어의 음성적 실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일본 내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의 역사는 雨森芳洲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만큼 그가 저술한 한국어 학습서는 당시 한국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한국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 훌륭한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일도인」뿐만 아니라 한글 이외의 문자로 한국어를 전사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완진(1963). “國語 母音體系의 新考察.”「진단학보」24. 진단학회. 63-99.

김완진(1971).「國語音韻體系의 硏究」(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전간 제4집). 서울: 일조각.

다카하시=高橋誠司(1998). “『全一道人』의 仮名転写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민(1986).「前期近代國語 音韻論 硏究」(국어학총서 8). 서울: 탑출판사.

이기문(1972).「國語音韻史硏究」(국어학총서 3). 서울: 탑출판사

李康民(1993). “対馬宗家文庫所蔵の『物名』について.”「朝鮮学報」148. 朝鮮学会. 147-217.

泉澄一(1997).「対馬藩藩儒 雨森芳洲の基礎的研究」(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研究叢刊 10). 大阪: 関西大学出版部.

沖森卓也(2010).「はじめて読む日本語の歴史」. 東京: ベレ出版.

上垣外憲一(1989).「雨森芳洲: 元禄享保の国際人」(中公新書 945). 東京: 中央公論社(2005년 講談社에서 講談社学術文庫로 재출간됨).

岸田文隆(2008). “早稲田大学服部文庫所蔵『朝鮮語訳』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その1: 子音について).” *Dynamics in Eurasian Languages*. 神戸市看護大学. 71-102.

岸田文隆(2010). “「朝鮮語訳」の朝鮮語かな表記について(その2: 母音について).”「제2회 역학서학회 국제학술대회」별지. 1-18.

木場明志(1994). “雨森芳洲関係資料の概要.”(滋賀県教育委員会編)「雨森芳洲関係資料調査報告書」. 滋賀: 高月町立観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 43-45.

佐々木悦也(2009). “雨森芳洲と朝鮮通信使.”「特別展『雨森芳洲と朝鮮通信使』」. 滋賀: 高月町立観音の里歴史民俗資料館. 8-14.

安田章(1964). “全一道人の研究.” 1-76(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1964 所收).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全一道人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國文學會.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72).「捷解新語: 本文篇」(三本對照). 京都: 京都大學國文學會.

<부록>「全一道人」 한국어 가나 전사의 교정 목록

* 이 목록은 「전일도인」의 한국어 가나 전사문에서 교정이 베풀어진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지워진 글자를 알 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하였다.
* [ ] 안 목록의 번호는 원문에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매겼으며, 출전은 맨 뒤 ( ) 안에 京都大學文學部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1964)에 실린 영인본의 쪽수를 제시하였다.

[001] フ*ルト → フ*ト (8)
[002] ソル.ヒ*ヨ{술펴} → ソル.ヒ*ヤ{술펴} (18)
[003] イシミヨン → イシメン (18)
[004] ケイムルヽ → ケイモルヽ (18)
[005] ソンソ*シクマン → ハンソ*シクマン (18)
[006] ナカイメン{나가면} → ナカメン{나가면} (18)
[007] ソイゾシク → ソイゾシキ (18)
[008] トテイヨ{드듸여} → トテイヤ{드듸여} (19)
[009] ケイムイ → ケイモイ (20)
[010] ソ*シクイイロヲムル{외로오믈} → ソ*シキ。ヲイロヲムル{외로오믈} (20)
[011] セシヤグイ{셰샹의} → セシヤギ{셰샹의} (21)
[012] ケイムイトヤ{되여} → ケイモイトヤ{되여} (21)
[013] ヒ*ヨスルハニラ → ヘ*スルハニラ (22)
[014] ドグヒイ{능히} → ヌグヒイ{능히} (22)
[015] スイヲミ{싀어미}ルヽ → スヨミ{싀어미}ルヽ (23)
[016] メノリドリ → メノルドリ (25)
[017] トテイヨ → トテイヤ (25)
[018] チ。チアブイ{지아븨}マルヽ → ク。チアブイ{지아븨}マルヽ (26)
[019] トリル{드릴}ソイ{ᄉᆞ이} → テレル{드릴}ソイ{ᄉᆞ이} (26)
[020] トリニ → テレニ (27)
[021] トテイヨ → トテイヤ (28)
[022] ヨルフル{열흘}マノイ → エルフル{열흘}マノイ (29)
[023] マイ{매}ロ。チヨ{쳐} → マイ{매}ロ。テ*{쳐} (31)[52]
[024] トリニ → テレニ (32)
[025] ス#カイトラ{ᄭᅵ드라} → ス#カイタラ{ᄭᅵ드라} (32)
[026] シヤグ.シヨ{샹셔} → シヤグ.セイ{샹셔} (32)
[027] チユ.シヨラ{쥬셔라}ハノンサラミ → チユ.セイラ{쥬셔라}ハノンサラミ (33)
[028] チユシヨロ → チユセイロ (33)
[029] シヨイ{셰} → セイ{셰} (33)
[030] ツルキヨ{줄겨} → ツルキヤ{줄겨} (33)
[031] クルヒヨ{ᄉᆞᆯ혀} → クルヒヤ{ᄉᆞᆯ혀} (33)
[032] カテンノン{가져ᄂᆞᆫ}クヽル → カテノン{가져ᄂᆞᆫ}クヽル (34)
[033] 成ドヲイ → セグドヲイ (35)

52) 교정한 내용을 종이조각에 적어 붙였다.

[034] ヲ̥ヨツヒ* → ヲ̥ヱツヒ* (37)
[035] アツフ*イ{알피} → アツヒ*{알피} (37)
[036] フ*ツチ̥ヨ{븟텨} → フ*ツテ̥*{븟텨} (38)
[037] トロホイ → トルホイ (42)
[038] シヤグ.ガムリ → シヤグ.ガグムリ (42)
[039] ヒユ.ナク{흉악}ハト → ヒユ.ナク{흉악}ハヤ (44)
[040] ハ*イロル{빠를}ソ*.ヲ{저어} → ハ*イルル{빠를}ソ*.ヲ{저어} (45)
[041] フ*ルヒ*ヨハムルインハヤ → フ*ルヒヨハムルインハヤ (46)
[042] シヤグチテ*ニ{샹쳔이} → シヤグテ*ニ{샹쳔이} (46)
[043] アヲイ{아이} → ア.ウイ{아이} (47)
[044] ス#トルイ{쏠의}チブイ → ス#タルイ{쏠의}チブイ (50)
[045] ス#トリ → ス#タリ (50)
[046] ス#トルヽ → ス#タルヽ (52)
[047] ス#トルヽ → ス#タルヽ (52)
[048] ス#トルヽ → ス#タルヽ (53)
[049] クリヨ{쓸혀} → クリヤ{쓸혀} (54)
[050] アンハイ → アナイ (57)
[051] ニヨムニヨハヤ → ネムニヨハヤ (57)[53]
[052] モルライ{몰에}クワ → モライ{몰에}クワ (58)
[053] モヤ{뫼여} → マヤ{뫼여} (58)
[054] ノルリヨ{놀려} → ノルリヤ{놀려} (59)
[055] モタ{모다}トリヨ{두려} → モタ{모다}トリヤ{두려} (59)
[056] リヤグ.シヨイウイ → ニヤグ.シヨイウイ (59)
[057] チヨツキヨ → テ*ツキヨ (63)
[058] キルヱイ → キレイ (64)
[059] タトラ → タタラ (64)
[060] 王シルヽ → ウグシルヽ (64)
[061] アンハイ → アナイ (67)
[062] ヲンモムイ{왼몸이} → ヲンモミ{왼몸이} (69)
[063] トリニ → テレニ (71)
[064] イロカロ → イルカロ (71)
[065] シンナムグル{남글} → シンナシグル{남글} (75)
[066] クツキ{극히} → クヽキ{극히} (75)
[067] ヲトイミヨン → ヲトイメン (76)
[068] ドワ → ヌワ (76)
[069] クワヌル。ハ*ツコ。ノムルハ*ツコ{밧고}。ワヌル
→ クワヌル。カチコ。ク。チヨホンクワヌル (80)[54]
[070] モクカイハコ → モクカイホコ (82)
[071] ヲトイミヨン{어드면} → ヲトイメン{어드면} (83)

53) 교정한 내용을 종이조각에 적어 붙였다.
54) 교정한 내용을 종이조각에 적어 붙였다.

[072] アホンヌイ{아흔의}ツクニ → アホヌイ{아흔의}ツクニ (84)
[073] テリチアニハヤ → トリチアニハヤ (86)
[074] ソ*セイ{즈시히}ヒイ → ソ*セイ{즈시히} (90)
[075] キルユイシヤ → キレシヤ (93)
[076] ムトトイ → ムロトイ (95)
[077] ニルラツトニ → ニルラツタニ (95)
[078] ムイ{믜이}ネキヨ → ムイ{믜이}ネキヤ (99)
[079] ヌ゛クヒイフ*ルリチ{부리지}モツハリラ
→ ヌ゛クヒイフ*リチ{부리지}モツハリラ (100-101)
[080] フ*ルラ{불러} → フ*ルロ{불러} (101)
[081] 晋チンソ*ク → チンソ*ク (102)
[082] ハ*ンドシキヨロツ#トニ{결오더니} → ハ*ンドシキヨロツ#タニ{결오더니} (102)
[083] キルレシヤ → キレシヤ (103)
[084] ソ*モイ{즈믜}ウイ情テ*グ{정}ル → ソ*モイ{즈믜}ウイ.テ*グ{정}ル (104)[55]
[085] ホ*ブイチヤギユ。イシ → ホ*ブイチヤギ.ユイ{쟝위}。イシニ (104)
[086] シヤグテ*イ → シヤグゼイ (105)
[087] 江カグロ → カグロ (108)
[088] ハモツハニラ → モツハニラ (108)
[089] チンヘグ{친형}ハ*グ.ヨグ{영}ロ → チンヘグ{친형}ハ*グ.ユグ{영}ロ (110)
[090] ネンブイ{넘뷔} → ネムブイ{넘뷔} (110)
[091] ソルヒ*ヨ → ソルヒ*ヤ (110)
[092] ヒ*シヤグル → ヒ*サグル (110)[56]
[093] ハ*ンル{반일}マノイ → ハ*ニル{반일}マノイ (110)
[094] ネンブイ → ネムブイ (111)
[095] 韓ハンヂユイ → ハンヂユイ (114)[57]
[096] ハンヨクル → クル (117)
[097] ホ*ブルロブ#ソ → ホ*ブロブ#ソ (117)
[098] ケイ.ムイ → ケイ.モイ (119)
[099] サグソロヽ → サグソルヽ (119)
[100] イルフミシヨヨ → イルホミシヨヨ (120)
[101] ウルフミ。ウニラ → イルホミ。ウニラ (120)
[102] ハ*グゾハコニ → ハ*グゾハニ (121)
[103] フリリルタロミ{뜨름이}ロラ → フルリルタロミ{뜨름이}ロラ (122)

55) 情의 처음 4획까지 적다가 지웠다.
56) 교정한 내용을 종이조각에 적어 붙였다.
57) 韓의 왼쪽 변을 적다가 지웠다.